

# 추석 명절 추모 예배 순서

주후 2021. 9. 21(화) 아침

사회 | 담당자

묵도	고 _____ 를 추모하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다함께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다함께
기도		가족중
성경봉독	요한복음 14:1~6	가족중
추모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가야할 영원한 길	사회자
찬송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찬송가 606장)	다함께
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함께
추모사	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중

\*지구촌교회 추석 명절 추모예배는 지구촌교회 공식 유튜브채널에서도 제공됩니다.

## 추모의 말씀(Message)

길가에 피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잠깐 피었다가 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영광도 잠깐이며 부귀와 건강도 잠깐입니다. 이런 찰나의 것으로 인해 영원을 경시하거나 놓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영원한 존재로 거듭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오늘의 본문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것입니까?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며 확실한 선포입니다.

###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 14:2)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많은 집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천국을 예비하시고 먼저 거하시면 우리를 위해 때가 찬 시각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3)

예수님께서 손수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약속처럼 실제적인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영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그 이후가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하듯 죽음 후에 심판(히 9:27)이 이르기 전에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 14:4)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영생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알고, 믿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 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읍나이까 (요 14:5)

도마와 같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같은 의문과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부활의 근원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도마와 같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길 가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예수님께서 오직 자신만이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죽음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증거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고전 15:20~22) 이 영광스러운 부활은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얻게 될 것입니다. (살전 4:15)

먼저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을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 이시며 약속이시고, 예수님의 선포이시며 증언이십니다. 영원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오늘 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으로 큰 위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